FX Market Daily

2025-03-19

전일동향

전일대비 5.00원 상승한 1,452.90원에 마감

18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5.00원 상승한 1,452.90원에 마감했다.
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.70원 하락한 1,443.20원에 개장했다. 장 초반 환율은 국내증시 외인 순매수에 하락 압력을 받았다. 그러나 오후 장에서 국내증시 약세 전환 및 결제수요 유입 등에 환율은 1,450원대로 반등하며, 1,452.90원에 종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15.40원이었다.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69.60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

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달러	1443.20	1455.40	1438.00	1452.90	1447.10
엔화	970.12	974.40	962.53	972.94	-
유로화	1581.29	1591.21	1569.86	1589.82	-
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: 달러는 익일 06:00(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:00)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

	1M	3M	6M	12M
보장환율(수출)	-1.06	-6.15	-13.82	-27.87
결제환율(수입)	-0.67	-5.28	-12.01	-24.46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

금일 전망

글로벌 통화정책회의 경계에...1,440원대 중후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7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(1,452.90) 대비 2.95원 하락한 1,447.25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금일 환율은 유로화 강세 및 러-우 휴전 가능성에 따른 달러 약세에 하락 압력이 소폭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. 독일 연방하원은 5천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위한 부채제한 완화 방안을 통과했다. 독일 재정지출 확대 및 경기모멘텀 개선 기대에 유로화는 급반등하며, 유로-달러는 장중 1.095달러까지 레벨을 높였다. 한편 미-러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및 인프라 부분에 국한한 휴전에 우선 합의했다. 러-우 전쟁 휴전 추진에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며,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됐다. 달러화는 유로화 강세 및 위험선호 심리에 약세를 보이며 0.146 하락한 103.255를 기록했다. 금일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를 쫓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. 수급상 1,440원 후반부터 적극적인 매도대응을 보이는 수출업체 네고 및 국내증시 외인 자금 유입 등도 환율 하락의 재료로 소화될 것으로 판단된다.
다만, 수입업체 결제 등 실수요 저가매수에 환율의 하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. 아울러 장중 BOJ 결과 및 익일 연준 FOMC에 대한 경계 심리도 환율의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

1444.60 ~ 1453.60 원

체크포인트

- 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4407.56 억원
- 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.95원↓
- ■ 美 다우지수 : 41581.31, -260.32p(-0.62%)
- 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90.87 억달러
- 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4770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